

ACC '2024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 축제 The Wave' 스크린 중계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4월호

# 서울 '클래식 라이브' 광주서 감상한다

4월 5일~27일 문화정보원 극장3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 첫 공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라이브 공연을 광주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은 '2024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 축제 The Wave'를 스크린 중계할 예정이다. 4월 5일~27일 매주 금(오후 7시 30분), 토(오후 5시) 문화정보원 B3 극장3에서 진행.

이번 상영회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36회 '교향악 축제' 공연 실황을 매주 금·토요일 총 8회에 걸쳐 생중계한다. 축제 주제인 'The Wave'는 아름다운 클래식 물결이 조화와 파동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광주시향을 비롯해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전시향, 서울시향 등 총 23개 국공립과 민간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첫 중계는 4월 5일 오후 7시 30분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 아드리안 페뤼송)' 공연. 인상파 작곡가로 알려진 라벨의 '스페인 광시곡 M.65', '피아노 협주곡 G장조 M.83', 발레 버전의 '어미 거위 M.62'를 들을 수 있다. 이어 인상파 음악의 창시자로 불리는 드뷔시 대표작 '바다 L.109'도 올려 퍼진다.

6일(오후 5시)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지휘 최수열)' 공연은 로베르토 디아즈의 비올라, 2023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 정규빈의 피아노 협연으로 채워진다.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Op.54', 펜데레츠키 '비올라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8번 F장조 Op.93'이 레퍼토리에 있다.

12일 예정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다비트 라일란트)'도 읍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장면. (ACC 제공)

앞서 진행한 '교향악축제 창작곡 공모'에서 임형섭이 창작한 '하빌라(Havilah)'를 세계 초연할 예정이다. 곡의 모티브가 된 '하빌라'는 순금과 호마노가 많아 풍족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널리 퍼져 살았던 성경 속 '모래 땅'을 의미한다.

장 프랑세스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더 그레이트" D.944'도 관객들을 만난다. 2007년 금호영재폰서트로 데뷔한 김한 클라리네티스트가 협연에 나선다.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홍석원)'이 들려주는 하모니도 스크린을 타고 광주에 울려 퍼진다. 이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곡들을 들려주며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장조 Op.102'와 '교향곡 제13번 b플랫 단조 "바비 야르" Op.113'로 관객을 만난다.

이 밖에도 여자경이 지휘하는 대전시립교향악단(13일 5시)은 블로흐를 모티브로 '히브리 랩소디 B.39', 스

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K015'를 준비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19일 7시 30분)은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Sz.112', 브람스 '교향곡 제3번 F장조 Op.90', 심포니 송(20일 5시)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G장조 Op.58', '교향곡 제7번 A장조 Op.92'를 연주한다.

경기필하모니오케스트라(27일 5시)는 글린카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Op.5',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단조 Op.77',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f단조 Op.36'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강현 전당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하는데 물리적 제약이 있었지만, 생생한 감동을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데 이번 '교향악 축제'의 매력이 있다"며 "The Wave"라는 주제처럼 아름다운 클래식 물결이 조화로운 파동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료 관람. ACC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연남



### 신발 벗고 '맨발걷기 EARTHING 열풍' 호남 대표 서화가 생애와 예술세계 조명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 맨발로 흙길을 걷는 '어싱'(Earthing-접지) 붐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4월호에서는 특집 '맨발걷기 EARTHING 열풍'을 준비했다.

'어싱'은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치유와 힐링의 기쁨을 얻는 일종의 건강법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대중화와 시민들의 '접지권'(接地權) 보장을 위해 새롭게 맨발걷기 길도 조성되고 있다.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산속 황토길과 정원 속 어싱 등 우리지역 맨발걷기 명소를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아키비스트'로 불리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의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명화 수집을 좋아하던 소년 김달진은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 수집과 기록에 평생을 바쳤다. 또한 사적 수집에 그치지 않고 공적 공유로 확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최근에는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는 수직천석(水滴穿石)의 표상인 그의 인생을 조명한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김재희 지음)'가 출간되기도 했다.

연재물 '문화를 품은 건축물'이 찾은 곳은 서울의 리움미술관이다. 지난 2004년 서울 한남동에 동지를 튼 리움미술관은 다수의 국보와 화려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사립미술관이다. 특히 스위스 출신의 마리오 보타, 네덜란드의 렘 콜하

스, 프랑스의 장 누벨이 설계한 건축물은 그 자체만으로 한해 국내외 방문객 수십만 명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년 7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리움미술관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한다.

'예향'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재)한국학호남진흥원과 광주일보가 공동 기획한 '호남 서화가(書畫家) 열전(列傳)' 연재를 시작한다. 공재 윤두서를 시작으로 원고 이광사, 장암 이상만, 소치 허련, 송수면, 의재 허백련, 남승 허건, 천경자까지 '예향 호남'의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로 이어지는 서화가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살펴본다.

따뜻한 봄날 떠나는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 여행지는 '낮과 밤이 빛나는 고장' 전남 광양이다. 매화마을과 배알도 섬정원, 옥룡사 동백나무숲,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인서리 공원'과 광양예술창고, 전남도립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이 돋보이고 매실과 귤, 김부각 등 광양의 맛에 군침이 돈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으로 신록 여행을 떠나보자. 이외에 '도시를 바꾼 아트 투어리즘'은 샌디에이고 현대미술관(MCASP)과 명소를,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는 울긋불긋 꽃대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전남의 꽃 축제들을 소개하고 '호남의 누정' 여덟 번째 이야기는 푸르름 사방에 두른 옛 문인들의 교류 공간이었던 광주 환벽당으로 향한다. /이보람 기자 boram@

## 가족뮤지컬 '알사탕'

4월13~14일 광주예술의전당

'아동/가족 부문에서 3년 연속 판매랭킹 1위(2019~2021년)를 달성한 뮤지컬', '아동 문학계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작 원작'. '상상력과 유머, 몽클한 감동이 담겨 있는 공연'

할리퀸크리에이션즈가 가족뮤지컬 '알사탕'을 4월 13~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양일 1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진행.

타인에게 말을 걸기 힘들어하는 9살 동동이. 혼자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을 사라 간 문방구에서 이상한 알사탕을 산다. 알사탕의 정체를 듣지 못하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법의 알사탕'.

공연의 원작인 백희나 작가의 동화 '알사탕'은 2017년 YES24 올해의 책에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일본 그림책 대상 번역그림책상, 2023 프렐미오 안데르센상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수퍼프렐미오 안데르센-갈티에로 추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품 대본은 전수양, 장희선 작가가 썼으며 흥승희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1층석 6만 원, 2층 석 4만 원, 인터파크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광주·전남 성당·교회 부활절 맞아 미사·예배 열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성안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세대통합예배 모습.

31일 부활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성당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 예배가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성안교회(담임목사 박홍석)에서는 오전 10시 30분 전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세대통합예배가 진행됐다.

박 목사는 '부활 사건과 믿음'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삼일만에 부활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도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과 행위로 부활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를 구현하는 삶을 살기

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육현진)는 지난 30일 오후 8시 육현진 대주교 주례로 북동 공동주교좌성당에서 부활대축일 밤미사를 열었다.

육 대주교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발표한 '2024 부활 메시지'에서 "부활은 과정 없는 새로운 탄생이 아니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는 것도 아니다"며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서는 것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일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3시에는 광주대교구청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주민 부활 대축일 낫미사'가 진행됐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 대상 도균·우수상 민선이

제6회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에 도균(경기)의 '내 이름은 이장수입니다'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민선이(광주)의 '남만고 사랑이 흐르는 충장포차'가 뽑혔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25일 오후에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6편이 투고됐으며 6편이 본심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대상 '내 이름은 이장수입니다'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으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인물들의 실감나는 사투리 묘사와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극적으로 잘 구성했다"며 "하지만 과거로 플래시백 되는 여러 장면 구성은 영화 등 영상물에서의 장치로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듯 했다"고 평했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 서구와 광주 서구 문화원이 주최·주관했다. 창작희곡 수상작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10회 광주시민연극제 참가극단에게 대본이 제공돼 공연무대에 올릴 수도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